

이룸소식 2015 07호

고객님 안녕하세요. 어느덧 올해의 상반기를 마감하였습니다. 이에 상반기 운용경과와 함께 하반기 운용계획을 전합니다.

조정을 지속한 6월

지난 6월 주식시장은 약 2% 가량 추가로 하락하여 연초 이후 약 8% 가량 상승한 수준에서 상반기를 마감하였습니다. 한편 코스닥시장은 추가로 4% 가량 상승하면서 종목별 움직임이 지속되었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 우려가 확대되었고 월말에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 메르스의 확산우려 그리고 중국시장의 조정진입이 시장심리에 부담이 되면서 시장조정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6월 운용경과

지난 6월 이룸은 아주 좋은 성과를 기록하였습니다. 계좌별로 한달 동안 3~5%의 우수한 수익률을 기록하였고 일부 자문형립 등의 경우 약 7%에 달하는 수익률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지배구조관련주, 소비재종목, 일부 제약 및 바이오 기타 저평가 개별종목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수익을 내고 있는데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너무 많이 투자하지 않고 적절한 분산을 통하여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분산투자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룸이 거둔 상반기 수익률은 특정 섹터나 한두 종목에 집중하여 올린 수익률과 비교할 수 없는 질적으로 매우 우수한 성과입니다.

이룸의 시황전망

우리는 하반기 시장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내 예상되는 미국의 금리인상은 그 폭이 크지는 않고 속도도 느릴 것으로 보여 큰 부담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의 유로화탈퇴 문제도 전보다

준비되어 있어 지난 2011년 처럼 시장에 큰 쇼크로 부각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메르스 사태는 점차 통제가능해지고 있고 중국시장의 조정도 그동안 상승폭이 매우 컸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조정이며 중국이 상승하는 동안 한국시장이 상승하지 않아 우리 주식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편 국내금리 인하로 시장의 하락이 있을 때마다 저가매수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 시장의 하락위험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전반적인 경기흐름이 부진하기 때문에 시장전체보다는 개별종목 중심의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반기의 좋은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반기에도 투자수익의 기회가 많을 것으로 보고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는 상승국면과 하락국면이 있습니다. 또 이룸도 어떤 기간은 수익을 많이 올리기도 하고 어떤 기간은 수익을 적게 올리기도 합니다. 다만 유리한 기간에는 수익을 좀 더 올리고 불리한 국면에서는 손실폭이 작게 잘 관리함으로써 시간이 지날수록 고객님의 자산이 불어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하반기 이룸의 운용에 신뢰를 갖고 성원해 주시는 고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점차 무더운 날씨에 더욱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2015. 7. 1.

조세훈 올림 / 이룸투자자문 대표